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길에서 이뤄지는 인연, 사실적으로 묘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의 맛을 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넣어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순수한 우리말이 언어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래도 자꾸 써야 자기 말이 되는 겁니다.

갈무리: 1)물건을 잘 정돈하여 간수함. 2)일의 끝맺음
컴퓨터를 마친 영수는 갈무리를 다 하지 못하고 급하게 외출하면서 동생에게 갈무리를 부탁했다.

갖바치: 가죽신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사극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갖바치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곰살궂다: 성질이 싹싹하고 다정하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곰살궂어 인기가 많다.

그루터기: 나무나 풀 따위를 베어 낸 뒤의 남은 뿌리 쪽의 부분.
산에 올라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시집을 읽다보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길라잡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
<컴퓨터 길라잡이>라는 책을 통해 컴퓨터 사용법을 혼자 익히고 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효석作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 10월호에 발표된 이효석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죠. 소설이 지닌 산문성 보다는 오히려 시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의 교과서'라 일컬을 정도로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우수한 소설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줄기는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과 부자 상봉을 통한 친자 확인(親子確認)이랍니다. 특히, 부자 상봉의 모티브는 오래 전부터 신화나 야담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이효석은 이러한 부자 상봉의 모티브를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 내었어요.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허 생원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장돌뱅이로,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장터에 남겠다는 낭만주의적 성향의 인물이지요. 동이는 의부의 행패로 가출한 애송이 장사꾼으로 솔직하고 순박하며 허 생원의 아들로 암시되는 청년이지요. 조 선달은 허 생원과 마찬가지로 안착할 가정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로 장돌뱅이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며 순수 소설로 어느 여름날, 낮부터 밤까지가 시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지요. 공간적 배경은 봉평 장터 주변, 대화로 가는 칠십 리의 밤길이지요. 이 밤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즉 일정한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설정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통로가 아니죠. 이 밤길은 떠돌이 주변인, 유랑객들에게는 안식처랍니다. 이 소설은 낭만주의, 심미주의 성격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표현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필치와 사실적 묘사가 빼어나지요. 장돌뱅이의 삶을 제재로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

'단편 소설의 교과서'로 불려 공간적 배경 주제에 관여 특징

연의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이 작품은 도시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산길→달빛→메밀꽃→개울로 이어지는 산수화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삶의 고통보다는 자연에 동화되어 지난 일을 회상하며 떠돌아다니는 한 장돌뱅이의 삶은 물론, 인간이 가지는 인연과 만남을 '길'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간적 배경이 직접 작품의 주제에 관여한 점이죠. 푸른 달빛에 젖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밤길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환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세계이죠. 작품 결말 부분의 '왼손잡이'에 대한 서술은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간이라는 암시를 주고, 허 생원에게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구실을 하지요. 줄거리가 궁금한가요?

장돌뱅이 허 생원은 하룻밤의 정을 나누고 헤어진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이 끝나고 술집에 들렀던 허 생원은 젊은 장돌뱅이 동이가 장터 술집의 충줏집과 어울려 농지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려 내쫓아 버린다. 동이가 달려와서 허 생원의 나귀가 발버둥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허 생원은 개울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물방앗간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친다. 성 서방네는 파산을 한 터여서 처녀는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관계를 맺었고, 이튿날 성 서방네는 제천인가로 가 버린다. 허 생원은 성 서 방네 처녀가 술집에 팔려갔을 것이라는 장판의 소문을 듣고,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허탕을 친다. 허 생원은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끝에 동이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찾는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생각한다. 동이와 개울을 건너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허 생원은 예정을 바꾸어 대화장을 보고 나면 곧바로 동이의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Q: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나이차가 좀 많이 나요^^). 동생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ID:youngzzang)

A: 착한 누나를 둬서 동생이 참 좋겠어요. 동생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1. 학교에 대한 흥미 심어주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학교를 '즐거운 곳', '신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선생님한테 혼난다" "까불면 무서운 아이들에게 맞는다"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해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친구도 많고 재미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친구도 잘 알고 있죠?

2.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초등학생에게 생기는 안전사고의 53%가 교통사고에요. 그 중에서도 1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가장 잦다고 해요. '차 조심하라'는 말로는 절대 부족한 것이 교통안전 교육이죠. 동생에게 꼭 신호를 확인하고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라고 시켜야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죠. 한번쯤 동생과 함께 등굣길을 답사해도 좋아요.

3. 나쁜 습관, 조금씩 고치세요
지금까지는, 지나쳐 왔을지 몰라도 동생에게 나쁜 버릇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줘야 해요. 한 번 나쁜 습관이 드러나면 학교에서 '그런 아이'로 눈에 띄게 되니까요. 친구도 잘 알죠? 학교에서 한 번 한 잘못된 행동이 나쁜 인상으로 남게 되면 참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동생의 나쁜 습관이 뭔지 꼼꼼히 살피면서 고칠 것은 알려줘야 해요. 혹 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때리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반드시 고치세요.
그럼 동생과 함께 파이팅이에요~!
(한마음심리상담연구소)

서울 불교의식 수강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2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9기)
1.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7년 4월 9일(월) 오후 3시 (목탁지참)
◈출 강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9기)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중요한 부분은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지도함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